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석예배순서지'가 본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도 비치해 놓겠습니다.
3. 다음 주일낮예배 기도담당은 박성대 집사님입니다. 오후찬양예배는 추석연휴로 인해 쉽니다.
4. 교우소식 : 권용기 집사님, 권도형 형제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건강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배 후 친교실에서 맛있는 점心和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친교 나누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9월 2일	9월 9일	9월 16일	9월 23일
예배기도(오전)	신동기 집사	오승현 집사	이준화 집사	박성대 집사	
예배기도(오후)	이영선 권사	최운정 권사	신경미 권사	추석연휴	
주일식사담당	헵시바 목장 (김금옥 권사)	양떼 목장 (황희용 권사)	늬바 목장 (유숙정 권사)	로뎀 목장 (정진숙 권사)	
토요일청소	둘로스 목장 (9/1)	주사랑 목장 (9/8)	갈렙.아론목장 (9/15)	에덴 목장 (9/22)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2020비전을 위해서
2. 남여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이창희 권사님, 권용기 집사님, 권도형 형제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미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쉼터.(국내) 사역자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다같이
*경배찬송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다같이
대표기도	이준화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배소서 5장 8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허영진 목사

경배와 찬양	다같이
목상기도	다같이
찬송	다같이
기도	신경미 권사
특별찬양	누구든지
성경봉독	인도자
말씀선포	허영진 목사
기도	허영진 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찬송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요 9:1-12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3)	허영진 목사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올바른 기도를 향한 과녁'(49)	허영진 목사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30 시편 묵상 시 86:1-17 '내게 응답하소서'(1)-(5)	허영진 목사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니다.◆

‘고향 가는 길’

한 낮의 별은 여전히 따사롭지만, 지난 8월과는 달리 9월의 공기는 사뭇 다르다. 한 쪽에서 바람이라도 한 줄기 불어올 때면 가을 느낌은 더욱 완연해진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진다면 가을이라고 했던가. 딱히 누가 보고 싶어 그런 건 아니다. 그냥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넓은 시골 들녘. 들길 따라 피어 한들거리는 코스모스, 가을 햇살에 익어가는 벼 이삭, 산허리마다 매어있던 누런 소들, 막연히 옛 고향에 대한 향수에 도취되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것은 왜 그럴까. 어느 시인의 말처럼 '정들면 그곳이 바로 고향'이라고 했던데 여전히 내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라서 그럴까.

지난 월요일, 여름휴가를 대신해 가을휴가를 내어 고향을 찾았다. 특별히 반겨줄 이도 없건만 인연(因緣)을 좇아 그곳으로 내달렸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종종 노래가 되어 우리의 향수를 강하게 자극한다. 마산 앞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이은상의 '가고파'가 그렇고, 고향의 정경을 생생하게 노래한 정지용의 '향수'도 그렇다. 두 곡 모두 끝을 "꿈엔들 잊힐리요"로 맺는 걸 보면 사람과 장소는 달라도 고향의 애뜻함은 마찬가지로인가보다. 결핍된 무엇을 찾아 떠났건만 고향은 그렇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풍경으로 남는다. 노래 속의 고향은 언제나 정겹고 포근하다. 돌아가고 싶은 고향을 우리는 본향(本鄉)으로 달리 부른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왜곡되고 추억은 미화되기 마련. 이 세상에 아름답지만 한 본향은 어디에도 없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씩 내려놓은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추석이다. 각인된 고향의 향기를 따라 먼 길을 돌아가는 연인들의 행렬처럼, 그렇게 많은 이들이 잊고 있던 추억을 그리며 고향을 찾아갈 것이다. 이보다 감동적인 회귀가 또 있을까. 귀성과 귀경으로 인한 기대와 달리 짜증으로 일관할 지라도 맘껏 명절을 즐기고 새롭게 충전 받기를 소망해 본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고향은 저 천국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Written by 허영진